

2002

대학무용제

2002 College Dance Festival



창설 12주년 기념

2002 대학무용제

2002 College Dance Festival

2002. 11. 2(토)▶3(일) /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11.2(토) 오후 7시

여름바다의 로망스 (경성대학교 / 발레 · 신정희)
신기루 (신라대학교 / 한국무용 · 양학련)
Miss & Mr. (신라대학교 / 현대무용 · 하정애)
문 (부산여자대학 / 한국무용 · 김성미)

11.3(일) 오후 7시

추억 (부산대학교 / 발레 · 민병수)
사람의 바다 II (부산예술문화대학 / 한국무용 · 윤여숙)
“샘” (부산대학교 / 현대무용 · 정귀인)

운영위원장 양학련(신라대학교)

운영위원 한은주(경성대학교)
 김은이(동아대학교)
 민병수(부산대학교)
 정경숙(부산여자대학)
 김희은(부산예술문화대학)

참가대학 경성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부산여자대학
 부산예술문화대학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대학무용진흥회

스텝 무대총감독 · 권영준
 조 명 · 신상준
 음 향 · 전인수
 무 대 진행 · 서종철

공연문의 부산대학무용진흥회(051-309-5301)

무용제





여름바다의 로망스

짙푸른 바다는 젊음을 부른다.
해풍이 스치면서 새로운 힘이 강렬하게 솟구치는 바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며 해변의 정취에 취해본다.
우리는 여행속에서 만남이 있었지
정겹게 노래하며 춤추던 친구들
즐거운 노래와 춤이 있는 곳으로
아름다운 여름바다의 낭만이 있는 곳으로...

안무 신정희 음악 Jean Pascal Mouton, Antonio Lauro 외 편집
지도 김옥련 무대장치 남영우 의상 윤성화 사진 이호영
출연 서지연, 정미경, 한주연, 허화실, 최연순, 박현정, 강수빈

신정희

- 경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한국발레 연구학회 상임이사
- 한국무용교육학회 상임이사
- 제14회 아시안게임 개회식 안무자





신기루

하루의 시작과 같이 인생의 시작은 새벽에서부터 비롯된다.
모두들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벽을 연다.
새처럼 높이… 높은 곳으로 비상하고 싶은 것은 인간… 모두의 꿈과 이상인 것이다.
이 작품은 비상하고 싶은 인간의 소망을 이름답게 안무한 것.

안무 양학련 음악 VANCELLIS 「The City」, 김죽파 산조, 장시의

출연 하선화, 김구연, 김정은, 류지연, 마명희, 문자영, 박은희, 오경진, 왕남경, 윤효정, 차은희, 최고은, 허윤정
김하경, 강수진, 권은경, 기현경, 김민경, 김성언, 김소라, 김정언, 민지은, 유연주, 이수혜, 주명진, 박은정



양학련

- 신라대학교 무용학부 교수
- '88 올림픽 총진행 감독
- '97 동아시아 게임 개막식 안무
- '95 미국 카네기홀 초청공연
- 부산 KBS 콩쿨 심사위원장



Miss & Mr.

조그만 생활용품에서부터 자연생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만사는 음양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안무 하정애 훈련 및 지도 하정애, 김유경 음악 자넷 잭슨 외

출연 김민정, 류혜정, 김창훈, 손유진, 박신정, 왕영숙, 유현수, 이미림, 이미영, 이상은, 이수진, 이지혜, 정영민, 정우진

하정애

- 신라대학교 무용학부 교수
- 사)한국현대무용진흥회 부이사장
- 국제 극예술 협의회(ITA)이사
- 하야로비 현대무용단 예술감독



한국무용



문

하늘을 맞대고 살면서 다시 태어나는 꽃들의 향기
기다리고 그리워 하는 자리하나 채우며 사는 일
저 하늘을 안으리 저 땅을 안으리

안무 김성미 음악 원일 의상 Mr.리 소품 조정남

출연 김정희, 김미정, 고윤정, 박혜민, 박새봄, 송미자, 정연주, 정주영, 윤지영, 윤혜림, 김현정, 강보라, 류지영, 조승경



김성미

- 부산여자대학 겸임교수
- 부산대학교 이학박사
- 원향총연구회 이사

발레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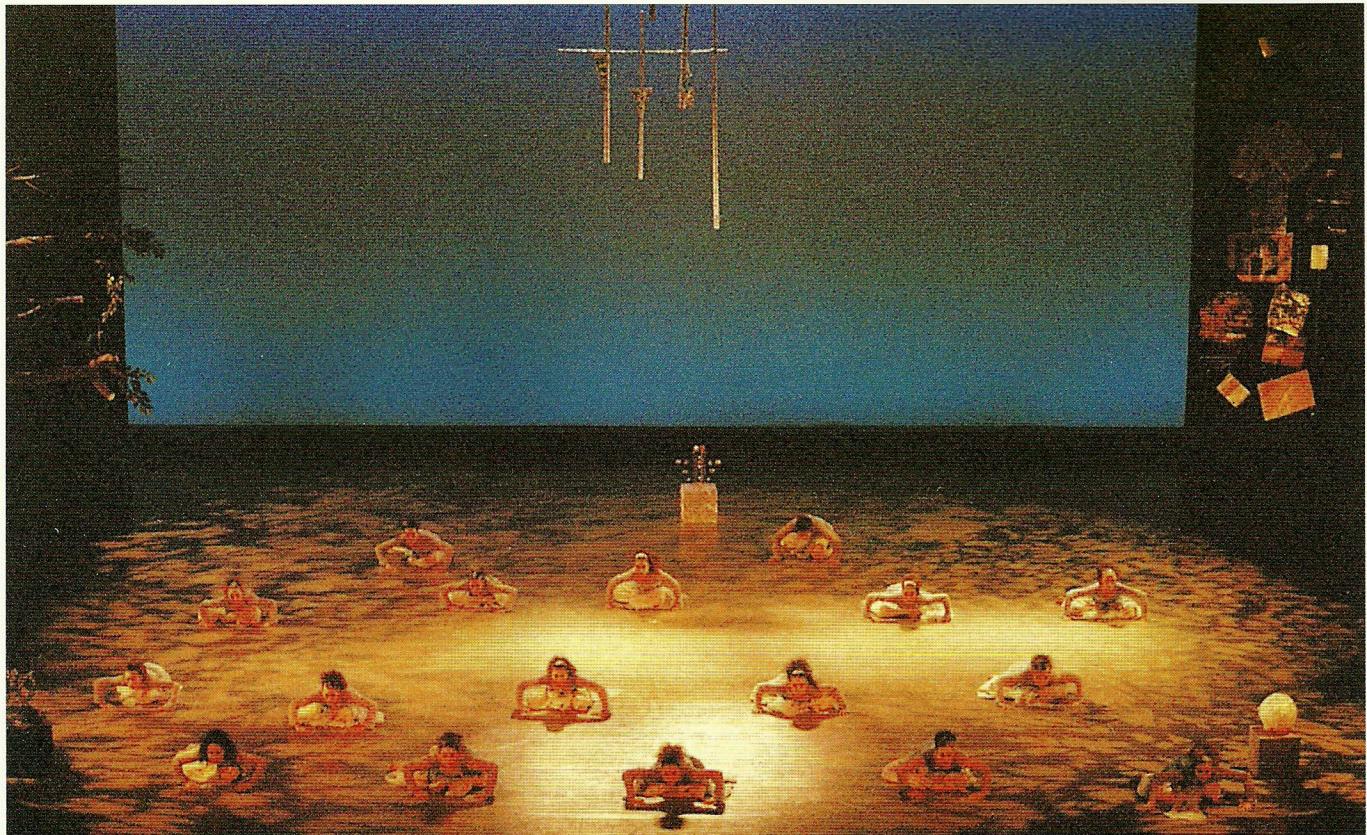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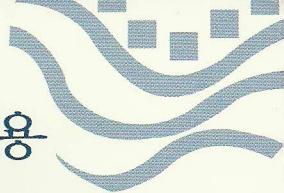
이 곡은 쇼팽이 젊은날 첫사랑을 그리며 작곡했던 곡으로서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음악적 해석을 춤으로서 충실히 표현한 작품으로
쇼팽의 젊은 날 사모하던 여인에 대한 수줍음과 열정을 그린 작품이다.

안무 민병수 지도 장정인 음악 Frederic Francois Chopin
출연 고지형, 김숙진, 박정윤, 하상미, 김정임, 문민희, 박지혜, 윤세희



민병수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조교수
-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역임
-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역임
- 워싱턴DC발레단 단원 역임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림스키 콜사코프 오페라 발레단 단원 역임



사람의 바다 II

어머니의 품속같은 바다, 그러나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어느새 통곡의 바다로 변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킨채 다시 無로 돌아가는 바다...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경은 바다와 닮아있다.
 인간은 자연의 이치와 함께 물질과 정신이 공존하여 '和'를 이루어 낼때
 새로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
 和에 의한 신인간, 그것은 개벽과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램이며 미래이다.

제1장 신인간 제2장 사람의 바다 제3장 화(和)의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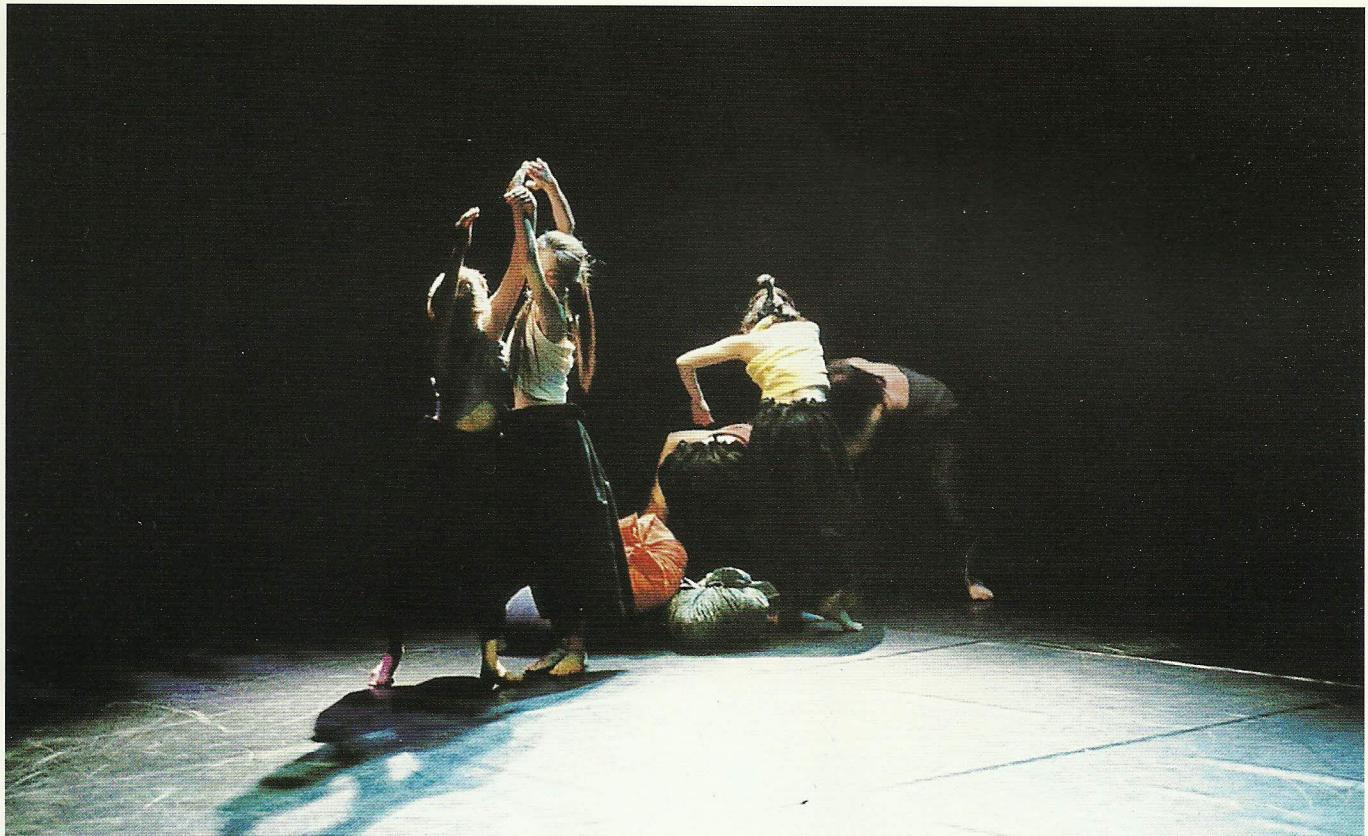
안무 윤여숙

출연 윤월선, 김윤경, 박한영, 이은정, 이민경, 안영주, 강선미, 도현주, 박지연, 김필분, 이진경, 문혜정



윤여숙

· 부산예술문화대학 실용무용과 교수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호 동래고무 전수자
 · 2002 부산아시안게임 개·폐막식 안무



“샘”

1917년 마르셀 뒤샹으로부터...

안무 정귀인 훈련 김정숙(부산대학교 강사) 음악 RENE AUBRY 외

출연 강모세, 구미록, 김태경, 김세경, 안소영, 오민정, 황고은, 강순자, 권양현, 김영아, 박연희, 안원영, 여상희, 이현정, 이해은, 현수정



정귀인

-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정귀인 & 부산현대무용단 단장
- WDA한국본부 안무분과장
- 한국현대무용협회 부회장